

현장경험 중심의 편집실무론

김영만 지음 「편집기자의 교양론」



출판학의 정초를 다지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서의 출간이 최근들어 늘고 있다. 출판계에 종사하는 직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실무적인 기술서 역시 많지는 않지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들 분야에 “윤기를 불어넣어줄 교양서”가 출간되었다.

한평생 편집일에 종사해온 김영만씨가 지은 「편집기자의 교양론」이 그것이다. “오랜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새로 편집자가 되고자 하는 신인들을 위주로 해서, 편집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요건들”을 그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올바른 편집기자가 되기 위한 절실한 시대에 후배들에게 전하는 진솔한 조언과 충고가 귀전을 올린다. 그것은 문예출판사 전병석 사장에 의하면 “사장 이 평소 모든 사원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말”

이며, 을유문화사 고정기 주간에 의하면 “선임 편집기자가 후배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들이다.

또한 이 책은 책의 해에 한 출판사가 단한권의 책에 부착할 수 있는 ‘책의 해 마크’라는 비장의 무기를 서슴없이 써버린 보성사의 특별출판기획물이기도 해 주목을 끈다. 보성사는 지난 83년에 ‘출판·편집 총서’출판을 시작해, 그로부터 10년째가 되고 책의 해이기도 한 올해는 ‘책의 해’ 기념 특별출판기획물 5종을 출간할 계획이다. 그중 첫번째 결실이 바로 「편집기자의 교양론」인 것이다. 이 기획에 의한 근간 예정인 책은 「누가 독서문화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이중환 외 공저), 「서점문화론」(저자 미정), 「속·책은 만인의 것」(이경훈 지), 「의사의 질병은 ‘책’만이 고친다」(박소리 역) 등이다.

「편집기자의 교양론」의 저자는 “편집자라는 직업은 일종의 접객업”이라 정의한다. 집필자·저술자라고 하는 “까다로운 손님”들로부터 좋은 원고를 받아내고, 그것을 가장 ‘맛나는’ 책으로 만들어 독자들에게 서비스하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그래서 편집자의 실무능력배양을 위한 지침보다는, 원고청탁에서부터 출판기념회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편집자가 갖추어야 할 에티켓과 예의범절을 ‘-습니다’의 경어체 종결어미와 자상한 어투로 소개한다.

제1장 : 편집이라는 직업, 제2장 : 편집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제3장 : 편집자가 하는 일, 제4장 : 내가 만난 편집자들로 구성돼 있다. 보성사/A5신/214면/5000원

언어적 특수성 눈길끄는 탐라노래

좌혜경 지음 「제주 전승동요」



메스컴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자연을 대상으로 부르던 전승동요의 이음새가 끊겨 가고 있다. 그것은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신세대들의 고향의 상실’로 받아들여진다. 전승동요는 흔히 ‘귀향’의 이미지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전승동요는 또한 음악과 문학의 젖줄이기도 하다. 예컨대 동요의 리듬이나 선율이 민요의 초보적인 틀을 형성했다든지, 동요의 문학적 구조나 내용이 기록문학의 원형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제주 전승동요」를 편저한 좌혜경(제주대 강사)씨는 그래서 이 책의 목표가 “현대 어린이들의 전통적인 문학교육 및 정서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책머리에’에서 말한다.

전국적으로 “전승동요는 유형이 비슷한 것이 그 특성”이긴 하지만 제주의 전승동요는

언어적인 특수성이 도드라져 이 책은 방언학과 어휘 의미론적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동요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함으로써 비교 민속학적 측면에서도 도움주는 바가 적지않을 것이라고 좌혜경씨는 조심스레 자평한다.

제주 전승동요를 “제재와 유희기능 위주로 분류하여 사설내용을 분석”한 편저자는 결론적으로 다음 세가지 결과를 도출해낸다.

첫째, 제주 전승동요는 ‘동·식물요’, ‘천체기상요’, ‘유희요’, ‘날말을 창조하여 말놀이 즐기는 어희요’, ‘비정상적인 동무를 놀리는 풍소요’, ‘자장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현대에 와서 생겨나 전승되는 유희요는 꿈과 소망을 노래한 것이 사라지고 성인사회나 학교, 가정에 대한 욕구불만 토로가 주를 이룬다. 셋째, 한반도의 노래와 비교해보면 형식면에서는 행의 수도 적고 단형이며, 음보는 2음보에서 벗어난 3음보 또는 2·3음보 혼합 기교가 나타난다. 관용구의 사용도 찾아보기 힘들다. 내용면에서는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 지역 특유의 제재가 차용되고, 주술성을 띤 주술요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이 책은 각 노래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만 보아도 노래의 내용이나 소재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동물요 이면서 새의 종류 중 꿩을 노래한 12번째 노래의 고유번호는 ‘11112’이다. 동물요가 ‘1’이고, 새의 고유번호가 ‘1’이며, 꿩이 또한 ‘1’이므로.

집문당/A5신/266면/5000원

출판사 경영관리업무를 전산화해 드립니다.

“나라정보시스템”에서는 차세대 출판서적유통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출판산업계의 전산화 확대보급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출판사의 판매, 재고, 영업 및 경영관리업무 전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기회를 드립니다.

- | | | | | | | |
|---|---|---|---|---|---|--|
| 1. 기본정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처 정보관리 ■ 도서 정보관리 ■ 시리즈 정보관리 ■ DM 발송관리 ■ 코드 설정관리 ■ 자료보관/복구 | 2. 전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출고전표처리 ■ 반품전표처리 ■ 조정전표처리 ■ 입금전표처리 ■ 거래명세서 발행 ■ 전표내역조회 | 3. 일보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일보 작성 ■ 수금일보 작성 ■ 영업수지일보 ■ 입/출고 내역서 ■ 반품 내역서 ■ 입금 내역서 | 4. 도서재고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반품재고조회 ■ 도서/반품수불현황 ■ 도서/반품재고현황 ■ 도서/반품재고조사 | 5. 원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원장 조회 ■ 거래원장 작성 ■ 계산서 발행 | 6. 경영정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스트셀러순위 ■ 서점별 판매순위 ■ 서점별 수금순위 ■ 서점별 미수금순위 ■ 서점별 영업총괄 ■ 기간별 영업수지 | 7. 정보통신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신자료 작성 ■ 자료 송/수신 ■ 수신자료 인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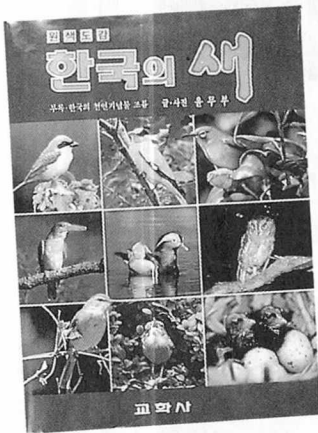
□ 최소한의 경비로 10배 이상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수직업무 대폭 간소화에 따른 인력, 시간 절감
- 신속정확한 장부관리 및 각종 보고서 작성 기능
- 상품수불부, 거래원장, 재고현황 등을 자동처리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관리(고객정보, 판매정보 등)

NAL A 나·라·정·보·시·스·템
☎ 566-1933 FAX 557-9225

직접 찍은 사진 모은 조류생태도감

윤무부 지음 「한국의 새」



나날이 심각해지는 공해문제와 함께 '자연 보호'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새는 공해에 가장 예민한 동물이어서, "새가 사는 환경이라야만 인간도 살 수 있다"는 명제가 널리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새의 생태와 철새의 도래지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 그리고 새의 신비한 자태를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람의 수가 부쩍 늘고 있는 현상이 그것을 증거한다.

새에 대한 이러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확대 재생산'시킨 선구적 인물로 경희대 생물학과 윤무부 교수가 손꼽힘은 주지의 사실이다. "새의 대변인"임을 자처한 그의 이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공식직함이 되었다. 20여년을 우리나라의 텃새와 철새를 찾아다니며 새와 함께 동고동락을 해온 윤교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완벽한 조류 생태 도감"이라는 평을

듣는 「한국의 새」를 펴냈다.

이 책에는 마라도에서 비무장지대까지, 독도에서 격렬비열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반쪽'에서 찾을 수 있는 222종의 새(텃새 및 철새, 나그네새, 미조 포함)의 생생한 원색사진 7백여 장과 해설이 수록되었다. 해설은 새의 형태, 습성, 식성, 분포지 및 번식지 순으로 서술된다. 이 책에 수록된 사진들은 "오직 필자 혼자 힘으로 촬영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사진은 단 한장도 수록하지 않았다"고 저자는 머리말에서 밝힌다. 특히 각 사진 밑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암수, 여름깃과 겨울깃, 성조와 유조를 구별하였으며 촬영장소와 날짜도 기록, 사진의 자료적 가치를 더해 준다. 부록으로는, '한국의 새'로 기록된 396종의 목록 및 천연기념물 조류와 그들의 번식지·서식지·도래지의 목록과 사진이 실려 있다.

한국의 조류가 396종이라는 '통계'는 그러나 백년 전의 것이다. 윤무부교수는 "이제 한국의 새는 200여 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 책에 실린 222종의 새가 "전국을 누비면서 찾은" 새의 '거의 전부'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절종되었거나, 이제는 우리나라에 찾아오지 않는 새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새들은 우리 생활주변 어디에서든 쉽게 발견되지만, 항상 인간을 경계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므로 가까이하기에는 멀리 있는 동물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새를 가까이서 관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교학사/B6/552면/25000원

에코가 털어놓는 창작의 비밀

「나는 장미의 이름을 이렇게 썼다」



움베르트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 대한 저자 자신의 '창작노트'인 「나는 '장미의 이름'을 이렇게 썼다」가 이윤기씨의 번역으로 열린 책들에서 출간되었다.

「장미의 이름」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독법에 대해 저자가 직접 해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책은 그러나 단순한 '해설서'를 넘어서 에코 자신의 문학적, 소설작법론까지가 개진되어 있다. 「장미의 이름」이라는 제목의 의미, 소설의 배경으로서 중세가 갖는 의미, 화자로 왜 '아드소'를 내세웠는지, 왜 탐정소설의 구조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등을 깊고 낮은 목소리로 소화한 매우 긴 '작가후기'인 셈이다. 또한 소설의 전체 구성, 역사적 사실에 대한 소설 창작의 문제, 온갖 인용구의 처리 문제, 디테일한 장치들의 처리 문제 등을 자세히 서술하여 역사소설 내지 소설일반의 창

작방법론으로도 읽힐 여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에코는 "작품이 끝나면 작가는 죽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죽음으로써 그 작품의 해석을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미의 이름」을 아끼는 이들에게는 이 책 역시 「장미의 이름」만큼 흥미진진하게 읽힌다. 일례로, 「장미의 이름」을 쓸 당시에 저자가 생각했던 제목은 "수도원의 범죄사건"이었다고 한다!

「나는 '장미의 이름'을 이렇게 썼다」가 '화제적'인 이유는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번역물 출간의 한 전범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시적 섬광의 축제"라 일컬어지는 「장미의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초역본이 "소설 번역의 해석학적인 한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기도 했고, 역자는 그것으로 "당대 최고의 번역문학가 중의 하나"라는 찬사를 받았다.

작년에는 "첫 페이지부터 새로 번역"하고, 500여개에 달하는 섬세한 각주가 첨부된 '개정 증보판'이 나와 화제가 되었다. 한국의 독자들은 「장미의 이름」에 관한 한 전세계 어느 나라 독자들보다 좋은 조건에서 소설의 재미를 즐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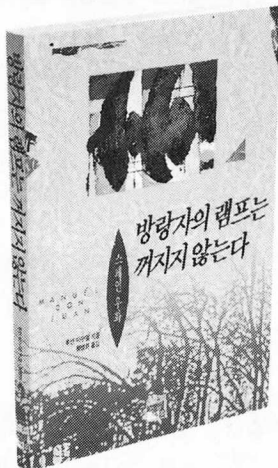
「나는 '장미의 이름'을 이렇게 썼다」는 그 자체로 저자의 탁월한 문학적이거니와 「장미의 이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돕는다. '번역본 결정판'을 만들어내려는 역자와 출판사의 의지가 돋보이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열린책들/A5신/112면/2800원

당신의 思考의 키를 재어 보십시오

세변을 대하면 당신의 삶은 세변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스페인 왕자가 쓴 인생을 엮는 지혜 모음집!



I. R. K 시리즈 컬러예화집

짧다! 쉽다! 깊다! 많다!

가슴으로 읽는 현대판 「명심보감」
진실의 광장에서 나눌
대화를 준비하세요!
삶의 지혜와 감동의
寸鐵殺人の 메시지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TEL : (02) 268-4902
FAX : (02) 277-6946